

행복주택 제주시내 분산 건설

화북·삼양·연동 등 시내 5곳 812호 규모로 신축
지상 1층 주차-2층 이상 주택 등 복합개발방식



원희룡 지사가 29일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건설 백지화에 따른 후속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공공임대주택) 건립계획 백지화에 따른 대체 부지가 확보됐다.

당초 행복주택은 700호를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대체 부지에는 812호를 건립키로 해 112호가 늘어났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9일 오전 제주도청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 백

지화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원 지사는 이날 “기존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건립 계획 백지화로 인한 청년들의 우려에 찬 목소리에 귀 기울여 왔다”며 “도심에 위치한 공유지 공영주차장, 공한지 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 등 대체부지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2년까지 청년과 저소득층을 위한 행복주택 5000호 건립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체 부지로 발굴된 신규부지는 ▷삼양동 공영주차장(행복주택 100호) ▷노형동 공영주차장(80호) ▷연동공한지 무료주차장(160호)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부지(300호) ▷동부환승센터(172호) 등이다.

제주도는 도심 내 공영주차장을 이용해 복합용도로 개발하는 방식으로 행복주택을 도입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지하 3개층 및 지상 1개층 등 4개층은 공영주차장으로, 지상 2개 층 이상은 행복주택과 주택의 주차장을 건설하는 식이다.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쓰이고 있는 부지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주차면수를 확대하고 다양한 주민편의시설을

만들어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화북상업지역의 경우 도시개발사업부지와 2017년 단행한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후속조치로 제주시 도심버스 환승을 돕기 위한 동부환승센터에 행복주택을 함께 건설한다.

단 서부환승센터에 행복주택을 건설하는 안은 검토가 이뤄졌지만 위치가 적절치 않아 보류됐다.

제주도는 앞으로 국토교통부에 행복주택 사업에 대한 국비를 신청할 계획이다. 주차장 부분은 생활SOC사업에 포함해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적극 절충하고 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31일 제주시 일도2동과 서귀포시 중앙동 주민센터 2곳을 주민센터와 행복주택, 공영주차장으로 복합개발하는 내용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원 지사는 “이번 사업은 단순히 임대주택을 짓는 사업이 아니라 기존 주차장 기능을 확대하면서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과 무주택 청년을 위한 행복주택을 공급하는 새로운 개념의 복합개발”이라며 “시민들의 주거복지와 주차난 해소를 위한 획기적인 대안을 꾸준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민복지타운 활용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시간을 갖고 의견수렴을 하는 등 좋은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소진기자 sj@ihalla.com



봄비로 더욱 싱그러운 탐방로 모처럼만의 봄비라서 그런지 반가움이 더하다. 봄비가 흩날린 29일 서귀포시 휴애리 자연생태공원에 현장 학습을 나온 어린이들이 봄꽃이 핀 탐방로를 삼삼오오 짝을 지어 걸어가고 있다.

녹지병원 “영리병원사업 접겠다”

최근 병원 근로자 50여명에게 고용해지 통보
동홍마을 “사업 중단 시 토지반환 소송 검토”
원 지사 “4자간 협의축 가동 상황 해결에 노력”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제주 녹지국제병원 사업자가 병원사업 철수 의사를 밝히며 근로자 고용해지를 통보했다.

녹지병원 사업자인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는 지난 26일 구사평 대표 명의로 된 ‘병원 근로자분들께 드리는 글’이라는 공지를 병원 근로자 50여명에게 배부했다.

녹지제주 측은 공지를 통해 “4년 동안 병원설립 및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으나 이제는 병원 사업을 부득이하게 접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여러분들(근로자)과 같이 할 수 없기에 이러한 결정을 공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며 근로자 대표를 선임해 주면 근로자 대표와 성실히 협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녹지병원 근로자 상당수는 “을 것이 온 것”이라고 입을 모

으며 향후 녹지제주 측의 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녹지병원에서 2년간 근무를 하고 있다는 직원은 “직원들이 대부분 이러한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다”면서 “그래도 어느정도 희망을 갖고 병원에서 버텼었는데 녹지측이 최근 고용해지 통보를 하면서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원 이후 현재까지 간호사 등 직원 1/3 정도가 병원을 그만둔 상황”이라며 “오늘 녹지 측 관계자들이 병원을 찾아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고용해지 통보에 따른 절차를 설명할 것으로 알고 있어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녹지국제병원 사업자가 병원사업 철수 의사를 밝힘에 따라 마을주민들은 토지반환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서귀포시 동홍2동마을회는 최근 임시총회를 열어 마을행사가 끝나는 5월 11일 이후 토지반환 소송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도연 동홍2동마을회장은 “쉽지

않은 길인 것을 알고 있지만 토지반환 소송을 준비하고 있으며, 마을행사가 끝나는 5월 11일 이후 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개원준비를 전혀 하지 않았고, 실제 진행 의사나 협의가 지난 3개월 이상 없었기 때문에 충분히 예상된 수순이었다”면서 “녹지그룹과 제주도, JDC, 중앙정부가 4자간 한자리 모일 수도 있고 또 각자 할 수도 있겠지만, 협의축을 가동해 상황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태윤기자

수산자원 금어기 신설·금지체장 강화

주요 어종 금지체장 등 조정
해수부, 수산자원 관리 강화

획감으로 인기가 높은 감성돔과 삼치의 금어기가 신설되고 낚치의 금지체장이 상향 조정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해 6월 10일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

어종별로는 어린 오징어를 보호하기 위해 살오징어의 금어기(4월 1일

~6월 30일)와 금지체장(19cm)을 강화했으며, 지역별로 다양한 종이 서식하고 규제도 다른 가지미류는 같은 크기인 20cm로 금지체장을 신설하거나 강화했다. 자원상태가 감소 추세인 삼치는 주 산란기인 5월 1일~6월 30일을 금어기로 설정했다.

이와 함께 낚시 인기어종으로 자원관리 필요성이 제기된 감성돔은 금어기(4월 1일~6월 30일)를 신설하고 금지체장(25cm)은 강화했으며,

남지도 금지체장을 현행 21cm에서 35cm로 강화했다. 우도 등 제주에서 한정해 서식하는 넓미어는 현행 9월 1일~11월 31일인 금어기를 도지사가 지역특성을 반영해 설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6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044-200-5540~5541),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표성준기자

연동 365 일의원

진료 과목 내과 / 소아청소년과

2019년 보건복지부 지정
2015년 부터 5년연속 지정

달빛 어린이병원

주중 평일 아침 9시 ~ 밤 11시까지
토·일·공휴일 밤 12시까지 진료

예약전화 **727-3651**
연중무휴 / 야간진료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필 제151005-증-77573

도민여러분과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성심껏 진료하겠습니다.

연동 365 일의원